

西洞一四六番地 해머리山麓에 所在 綠靑磁(日名·伊羅保手)窯址를 發掘調査했다. 이 發掘은 國立博物館 崔淳雨氏의 指導로 金宇一 仁川博物館長, 鄭良謨 國立博物館學藝官補 등이 이를 擔當했으며 많은 綠靑磁堆積層을 檢出했다.

◎ 益山 王宮里 石塔工事的 設計變更

이塔의 土壇內에서는 石造基壇이 露出되었고 동시에 四周를 돌아 結構되었던 甲石面石 등이 發見되므로써 그 復元이 可能케 되어 十二月 十九日로써 工事中止되었다. 이에 따라 越冬中 基壇部는 다시 埋土되었는 바 鄭明鎬氏만은 塔材實測次 二十三日까지 現地滯留하였다.

◎ 昌寧 述亭里 三層石塔의 補修

十二月二十四日 解體되었는 바 第三層塔身 中央의 方孔(五寸五分×四寸五分)에서 靑銅蓋形容器(高와 徑 九cm) 一, 黃色유리製 舍利瓶(高三cm, 舍利七粒) 一, 기타 香片과 유리小珠 등이 發見되었다. 이 工事에는 黃壽永氏와 金周泰氏가 立會하였으며 舍利具는 文化財管理局에 移管되었다. 또 工事に 앞서서 周圍의 民家는 撤去되어 環境一新이 이루어졌다.

◎ 廣州 春宮里 三層 및 五層石塔의 補修

十二月二十三日 解體되었는 바 兩塔은 모두 基壇部가 破壞되었었다. 解體에 따라서 舍利孔이 發見되었으나 모두 空虛였다. 五層塔은 第四層屋蓋石內面(二枚中 北便)에 方孔이 있었으며 三層塔은 第一塔身 上面 中央에 둥근 二段舍利孔이 있었는 바 그 속에 가득 차 있던 土砂中에서 銀器破片和 橢圓形의 金銅製小盒이 發見되었는 바 이 小盒中에는 舍利가 들어 있었다.(黃壽永氏와 金周泰 監督官立會) 그後 基壇部工事에는 金福庚氏가 參與하였는 바 三層塔 基壇中央土中에서 蠟石製小塔 二十六基 銅製如來立像 一 驅銅製小人物坐像 一 靑銅三花形蓋 一 등이 發見되었으며 五層塔周邊에서는 石製水煙 一 基壇面石 甲石 등이 發見되었다. 동시에 兩塔에서는 地中하였던 下層基壇(三層塔下層基壇中石에는 各面三區의 眼象이 있음)가 露出되므로써 모두 重壇임이 밝혀졌으며 또 蓮花文圓瓦當과 花文平瓦當片이 出土되었다. 이와 같은 出土品 및 基壇 등 調査에서 이塔의 年代가 새로이 檢討된 것이 期待된다.

◎ 芬皇寺域에서 石佛群 發見

十二月二十일부터 약 一週日 서울大博物館 金元龍教授에 의하여 發掘된 경

주 芬皇寺域北方 土窟에서는 둥근石築의 古井內에 埋藏된 石佛坐像, 同光背, 菩薩立像 등 約十五軀가 出土되었으며 그와 隣接된 곳에서는 積石遺構도 露出되었다 한다. 石佛은 芬皇寺庭에 運搬되었는 바 約九世紀頃의 破佛이 太牛이 나 이 같은 一括品은 新羅石彫研究를 위하여 貴重한 資料가 될만하다.

第七卷 第二號 通卷六十七號
金銅製小塔形

秦弘燮

近來 金銅製小塔形을 過眼한 일이 있다. 이 遺物은 서울市內 姜文淑氏가 所藏한 것으로서 出土地, 出土年月日 모두 未祥이다. 따라서 遺物로서 큰 價値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形態가 稀貴하여 한 研究對象은 될지하다.

外形을 보면 이것을 果然 塔이라고 하여서 좋을지 疑心스러운 程度로 異型이다. 먼저 그 形態를 보면 方形의 基壇部와 圓形의 身部와 相輪部로 區分되는데 各部가 一鑄로서 內部는 中空을 이루고 있다. 處處에 鍍金한 痕跡이 남아 있기는 하나 全面적의 脫落되어 鏤이 되어 있다. 基壇은 地臺위에 遞減된 三層의 받침이 있고 그 위에 竿柱가 없었는 데 四面에는 比較的 鍍金이 잘 남아 있고 線刻으로 飛天과 花紋이 細刻되어 있다. 竿柱위



에는 二段의 받침을 엮어 넓은 土臺를 받고 있으며 그 위 一層의 받침이 또 엮혀 있다. 이 위에 身部가 없는데 이 부분부터는 圓形이 基本形을 이루고 있다. 身部는 相當히

높은 四段의 層段이 있는 圓座形 위에 얹혀 있다. 身部の 形態는 公州 麻谷寺 五層石塔 頂上의 金銅相輪과 相似하여 上部가 擴張된 圓筒形인데 여가서 特異한 點은 前面에 圓形龕形이 開設된 點이다. 高·幅 3cm 程度의 小龕으로서 밑은 二·八cm의 幅으로 水平을 이루게 되어 있다. 龕室 內部는 空間을 이루어 全體의 中空과 그대로 連結되어 塔身에 圓孔을 뚫려 놓은 것 같다. 本來는 龕室開設의 意思에서였을 것이다. 이 龕形 上面에는 〇·五cm의 幅으로 半圓을 그리며 〇·三cm 乃至 〇·四cm 뒤어나오게 만들어 遮陽을 단 形狀을 나타내고 밑으로 쳐져서 左右에서 옆으로 튀어나온 角形 小突起가 附着되어 있다. 身部の 上面은 거의 平頂을 이룬 中央에 조그마한 方座를 얹고 그 위에 四面으로 斗출된 一邊 三cm의 星形이 놓여 露盤의 役割을 하고 있다. 그 위에는 下徑 二cm 上徑 〇·八cm의 十一節 圓錐形의 相輪이 얹히고 다시 下徑 二·五cm 高 一·一cm의 覆鉢形 寶蓋와 寶輪을 얹어 놓았다.

全高 二二·五cm, 基壇部 高 七·五cm, 同下幅 一二cm, 身部 高 四·五cm 同 上徑 六·五cm의 이 조그마한 塔形은 部分的으로 形態上의 差異 또는 表面彫飾에 差異가 있다고 하지만 金東鉉氏所藏 金銅舍利塔①과 類似함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알려진 其他 諸例②와도 類似함을 볼 수 있다.

이 塔形의 外形이 一見하여 高麗末期 元朝服屬下에서 그 佛敎文物의 流入으로 因하여 傳來된 囉嘛塔 樣式의 影響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樣式의 流行을 보게 되어 方形石塔 위에 一部樣式으로서 導入되고 이 系流를 따른 舍利塔 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이 塔의 形態와 같은 囉嘛系塔을 찾아 보면 元 世祖 十六年(西紀 一二七九)에 建立하였다는 河北省 北京所在 妙應寺白塔을 들 수 있는데 各部 構造가 龕形開設以外는 거의 同一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塔形의 傳來經緯가 밝혀졌더라면 하는 愛惜한 感이 한층 더 하다.

註

① 黃壽永·高麗 金銅舍利塔과 靑瓷壺(本誌 第三卷 第一號)

② 前記 論文中에 例示한 諸例參照

高麗 靑銅梵鍾과 己酉銘 靑銅盤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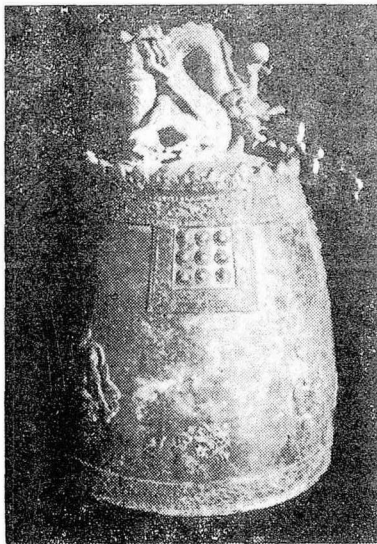
李 浩 官

一九六六年 一月十三日과 十七日頃에 京畿道 漣川郡 百鶴面 元堂里에 서 尹泰鎭 尹錫鎭 兩氏에 依해 古鐵을 蒐集하다가 出土된 靑銅梵鍾 一口와 己酉銘 靑銅盤子 一個를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靑銅梵鍾

鍾의 發見은 一九六六年 一月十七日頃 漣川郡 百鶴面 元堂三里部落에 서 約五〇〇m 정도 거리의 營農地域內에서 地表로부터 四尺五寸 정도 깊이에서 發見되었다고 하며 發見된 場所를 部落의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부터 이곳을 「탐두들」이라 일컫으며 現在도 이곳에는 塔材 비슷한 石材가 地下에 묻혀 있다고 한다.

鍾은 全高 三七cm(龍紐 一〇·五cm 包含) 口徑 一三·五cm 鍾口 두께 一·五cm의 小鍾에 不過하지만 鍾身의 形態와 흘러내린 曲線 그리고 龍紐 甬筒 等 鍾頂部의 意匠을 살펴보면 아담한 高麗梵鍾에서 가지는 基本的인 樣式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近來에 出土된 鍾類의 銅鍾보다 優秀하



고 完全한 通型의 小鍾으로서 甬筒에 붙어 있는 龍紐의 彫刻은 刻明하고 甬筒에는 四珠가 남아 있고 一部가 약간 파손되어 있을 뿐이다. 鍾肩 上緣에는 三角形으로 된 立狀 蓮花紋 二六瓣이 돌